

# “큰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부른 일”

## 봉준호 감독 '옥자' 논란

봉준호 감독(사진)은 14일 '옥자' 상영 논란과 관련 "제 영화적 욕심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봉 감독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그의 새 영화 '옥자'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넷플릭스가 다른 나라에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 '옥자'를 큰 화면에서 보여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관계자들에게) 스크린에 걸고 싶다고 말했고, 일이 그렇게 진행됐다. 원인 제공자는 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의 영화적 욕심때문에 여러가지 피로감을 느낄 업계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영화를 넷플릭스의 품질 좋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극장 화면 모두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봉 감독은 또 "극장과 넷플릭스 입장 모두 이해한다. 극장업을 하는 분들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반대로 넷플릭스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옥자'는 넷플릭스 가입자의 회비가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우선권을 뺏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보다 영화가 먼저 도착했다. 스트리밍 영화와 극장 영화 간 규칙을 새롭게 정립할 기회이기도 하다. '옥자'가 이런



화려하게... 멋지게... 신인그룹 NCT 127 멤버들이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NCT #127 CHERRY BOMB'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규칙들을 다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가 투자·제작한 이번 작품은 국내 3대 대형 극장(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과 상영 방식을 놓고 갈등 중이다. 넷플릭스가 오는 28일부터 온라인과 극장 동시 상영을 원하고 있는 반면 3대 극장은 '선(先) 극장 후(後) 온라인' 방침을 고수

하고 있다. 개봉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옥자'는 국내 극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이른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관객을 만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옥자' 개봉을 확정된 극장은 서울 극장·대한극장·씨네큐브·전주시네마·부산영화의전당·울산현대미술관·대구만경관·인천 애관극장·청주 SFX 등이다.

봉 감독은 "한동안 있고 지냈던 정겨운 극장들을 다시 찾을 기회라며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 하지만 길게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 때 "모든 논란을 끝내고 영화를 즐겨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옥자'는 28일 넷플릭스와 극장에서 동시 개봉한다.

/뉴시스



## 프랑스, 잉글랜드와 친선경기서 3-2로 승리

10명이 싸운 프랑스 잉글랜드 제압 프랑스는 14일(한국시간)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친선경기에서 3-2로 이겼다.

지난 10일 스웨덴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예선에서 1-2로 진 프랑스는 이날 승리로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했다. 잉글랜드는 지난 3월 독일과의 평가전 이후 3개월 만에 패배를 당했다.

잉글랜드는 전반 9분 해리 케인(토트넘)이 팽발 크로스를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프랑스는 전반 22분 사무엘 움티티(FC바르셀로나)의 골로 따라 붙었다. 움티티는 올리비에 지루(아스날)의 헤딩슛을 골키퍼가 쳐내자 달려들며 오른발 슈트로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43분에는 지브릴 시디베(AS모나코)의 역전골까지 나왔다. 프랑스는 후반 3분 리파엘 비라(레알 마드리드)이 퇴장 당해 수적 열세에 몰렸다. 이때 내준 페넬타키를 케인이 넣어 프랑스는 2-2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은골로 캉테(첼시)가 버턴 중원은 수적 열세를 잊게 해줬다.

경기를 마무리 한 이는 오스만 데멜레였다. 19세 소년 킬리안 음비페(AS모나코)의 패스를 받은 데멜레는 오른발 강슛으로 접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민근기자

## 축구협회, 기술위 소집... 슈틸리케 감독 경질 검토

대한축구협회가 이르면 오늘 기술위원회를 열고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검토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4일 "빠르면 내일 기술위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타르 월드컵에 동행했던 이용수 위원장이 돌아야 일정을 최종 확정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열 계획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술위에서는 자연스럽게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경질 위기를 넘겼던 슈틸리케 감독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카타르전 실패로 더 이상 자리 지키기는 힘들 전망이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8차전에서 카타르에 2-3으로 패했다. 한국이 카타르에 진 것은 1984년 싱가포르 아시안컵 0-1 패배 이후 33년 만이다.

한국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승점13(4승1무3패)으로 3위 우즈베키스탄(4승4패·승점12)에 1점 앞선 2위를 유지했으나 이란(8월31일), 우즈베키스탄(9월5일) 등 남은 팀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패배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감독으로서 내 자리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 그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말하겠다"며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민근기자

# 서태지, '과거 공연 실황' 모바일 버전으로 재발매

## 데뷔 25주년 기념... 네이버 브이 라이브 브이 스토어 통해 총 3편의 공연실황 발매

서태지가 데뷔 25주년을 기념해 과거 공연 실황 영상을 온라인 모바일 버전으로 재발매 했다.

서태지는 13일 오후 5시 네이버 브이 라이브의 브이 스토어를 통해 총 3편의 공연실황을 발매했다.

2000년 '이리태지피플(EERIE Taiji People)', 2001년 '태지의 화(話)', 2004년 '제로 투어(Zero Tour)' 등이다.

'라이브 빙스(LIVE BEINGS)'라는 패키지 타이틀로 공개되는 이번 영상은 이후 순차적으로 추가 타이틀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리태지피플'은 위성 생중계 공연실황이다.

서태지가 일본에서 라이브로 공연하고, 국내 팬들은 집 앞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연을 즐기는 독특한 형태의 라이브 영상이다.

기존 VHS로만 발매됐던 영상으로 이번에 처음 디지털화 해 모바일을 통해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태지의 화'는 6집 컴백 후 공연실황을, '제로 투어'는 7집 전국투어를 담은 것이다.

서태지컴퍼니는 "기존에 VHS, DVD, 블루레이 등으로 발매됐던 서태지의 공연실황 및 활동영상을 모바일 환경에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재발매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서태지는 오는 9월29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롯데카드 무브 사운드트랙 Vol.2 서태지 25'를 연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